

KCCI 브리프_ESG_제41호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SEP. 2024

전문가 기고

기업의 ESG 공시 성공은
Scope 3에 달려있다

ESG 주요 현안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기업의 ESG 공시 성공은 Scope 3에 달려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석좌교수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Scope 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SG는 친환경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2015년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하나로 ‘탄소중립’이 보편화되었고,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불균형’이 확대되고, 각국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ESG가 크게 확산하게 되었다.

최근 ESG 관련 핫이슈는 지속가능성 공시이다.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4월 지속가능성공시 기준의 초안을 발표하였고, 초안을 작성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8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업, 기관,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초안 수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금년 말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여, 금융위원회 ESG금융 추진단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범정부 ESG정책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Scope 3 의무화와 함께 산업지표, 내부탄소가격, 연결기준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Scope 3 의무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Scope 1은 ‘직접배출’로 기업의 조직 경계 내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며, Scope 2는 ‘간접배출’로 외부 전력과 열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Scope 3은 기업 조직의 공급망(Value Chain)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다. 근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Apple 등 국제적인 기업이 공급망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cope 3은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GRI, ISSB, ESRS, SEC 등 모든 국제 공시가 ‘단계별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Scope 3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해갈 수 없다. 유럽의 경우에는 CSRD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 정보공개 의무화가 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공급망 정보확보가 용이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공급망에 대한 정보와 정보의 수집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Scope 3 의무화를 명시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정하여야 하며, 기업이 정보 구축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정 및 예측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정보 확보가 용이하도록 공공정보 공유인프라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Scope 1, 2 배출량 추정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갖고 있는 3,500여개 기업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Scope 3 배출량 상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자발적 탄소배출권(VCM)도 확보할 수 있다. 또, 2026년부터 적용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U 공급망 실사법, 그리고, 해외 공시의무에 대응하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대상기업은 제대로 대응해야 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 회의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SG 주요 현안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 한국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는
2024년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KSSB)는 2024년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공시기준은 제1호와 제2호, 제101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 보고서 준수사항을, 제2호는 기후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제101호는 적용여부를 선택가능한 선택공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공시를 제외한 그의 공시는 선택사항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개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기준구조

의무	제1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관련 공시사항
선택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배경 및 경과

지난 2021년 IFRS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를 설립하였으며,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로 논의를 거쳐 2023년 6월 ISSB 기준(S1, S2)을 발표했다. 또한 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해외 각 국에서도 ESG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KSSB를 출범시켜 ESG 공시기준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KSSB는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코스피 상장 242개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과의 대면 19회, 화상 2회), 핵심이해관계자(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특허청 등)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까지 진행한 의견조치를 거쳐 최종안 작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시기준 최종안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정원칙

제정원칙은 수용가능성, 국제통합성, 정보의 유용성이다.

첫째, KSSB는 국내 산업의 특성과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 및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ESG 공시기준을 준비했다. 둘째, KSSB ESG 공시기준 제정시 해외 각 국의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가능성과 국제통합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1호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과 공시의 내용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적, 일반 요구사항, 적용 범위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개념적 기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부록에는 부록 A~F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록A	용어의 정의	부록D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부록B	적용지침	부록E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부록C	지침의 원천	부록F	시행일 및 경과규정

제1호에는 공시원칙을 다룬 개념적 기반과 공시내용, 표시 등의 일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에 적용된다.

기후공시는 의무적으로 하되 그외 공시는 주제별 선택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기후의 주제공시는 제1호에 따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도록 부록E에 규정되어 있다.

개념적 기반

개념적 기반은 보고기업, 중요성, 공정한 표시, 연계된 정보,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다, 재무제표의 보고기업은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중요성에서 중요한 정보란 정보를 누락, 잘못기재,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로, 이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정 종속기업의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은지는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의 유용한 재무정보는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담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비교가능성, 적시성, 검증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의 보강적 질적 특성을 담보해야 한다.

연계된 정보에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간의 연계,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내의 연계, 재무제표와의 연계등의 정보가 있다.

핵심요소에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가 있다.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ISSB와의 비교 I

구분	IFRS공시기준	KSSB 공시기준 공개초안 제1호
공시주제	모든 지속가능성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공시. 적용 첫해에는 기후만 공시허용	기후는 의무공시. 기후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공시여부는 기업이 공시 주제별로 선택
산업기반지표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지표 공시요구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지표공시선택
SASB기준의 활용	위험 및 기회와 공시 요구사항 식별시, SASB기준의 적용가능성을 반드시 고려	위험 및 기회와 공시 요구사항 식별시, SASB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승인일 및 승인자 공시		발행승인일, 승인자 공시

제2호 ‘기후관련 공시사항’

제2호에서는 기업이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투자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떠한 사업을 전환해야 하는지, 규제와 소비자 변화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첫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미치는 영향 둘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및 전략, 셋째,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호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용어의 정의, 적용지침, 시행일 및 경과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자본비용(기업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기업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는 제외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는 기후관련 위험 즉, 물리적 위험(급성, 만성)과 전환위험, 기후관련 기회를 공시하는 데 적용되며 기업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공시를 생략한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해야 한다.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핵심요소

기후관련 공시사항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TCFD Framework와 동일하며,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이다.

1. 거버넌스

기업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관련 정보로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와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기후공시와 선택공시사항인 인적자본을 공시한다면, 통합공시가 가능하다.

2. 전략

기업이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관련 정보이다.

1)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식별한 위험을 물리적위험과 전환위험으로 분류하며, 영향이 발생하는 기간범위를 기술하는 것이다. 기준서에서 정의된 기간범위는 단기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후다. 다만, 제시된 기간 범위 외 다른 기간 범위 사용도 가능하다.

2)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과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지리적 영역, 시설 및 자산의 유형)을 공시해야 한다. 가치사슬은 보고기업의 사업모형 및 보고기업이 운용되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상호작용, 자원 및 관계의 전체 범위를 말하며, 가치사슬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내·외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전략 및 의사결정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업의 대응방법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조달방법 및 조달 계획, 과거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 고려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간의 절충(trade-off)을 공시해야 한다.

4)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양적정보는 단일값 또는 범위값으로 공시하며, 질적 정보공시도 가능하다.

질적 정보공시는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때, 측정 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을 때, 예상 재무적 영향을 제공함에 있어 기업이 기량, 역량,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가능하다. 예상 재무적 영향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이용가능한 기량, 역량, 자원의 수준에 상응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5) 기후회복력

기후관련 변화, 전개 및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에 관한 정보이며, 회복력 평가내용과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한 투입변수 및 가정을 공시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특정 시나리오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상황에 상응하는 시나리오 접근법 사용이 가능하다.

*시나리오 분석

- 상황평가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기량, 역량 및 자원을 고려한다. 시나리오 분석 접근법 결정은 투입변수를 선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근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시나리오 수행시기는 매년 수행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의 다년간 전략계획 주기에 맞추어 수행 가능하다. 단 회복력 평가는 매 보고기간마다 수행 가능하다.

3. 위험관리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업의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그 내용은 위험관련 프로세스 및 정책, 기후관련 프로세스, 전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4. 지표와 목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기업의 성과(진척도)관련 정보다. 산업전반지표는 7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별 특성에 따른 산업기반지표는 국제적 기준이 부재한 관계로 공개초안에서는 선택사항으로 하였으며 향후 국제적 기준개발상황과 국제동향, 자본시장의 상황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기후관련 목표를 공시해야 한다. 단 기업이 개발한 지표 공시도 가능하다. 이때, 지표의 정의, 성격, 제3자에 의한 검증 여부, 측정방법 및 투입변수를 공시해야 한다.

1) 산업전반 지표

①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1 및 Scope 2(지역기반) 배출량을 공시
- Scope 3 배출량 공시의무화 여부 및 시기는 추후 결정
- 관할 당국 등으로부터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GHG 프로토콜(2004)에 따라 측정
- 측정접근법, 투입변수, 가정공시, 배출량 세분화 공시

[세분화 공시1-연결실체]

- Scope1,2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공시
회계상 연결실체(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연결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피투자자(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세분화 공시2-측정방법별]

- Scope 1, 2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공시

GHG 프로토콜에 의해 공시해야 하지만 관할 당국 또는 자신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측정을 위해 요구받는 다른 측정방법이 있다면 탄소중립기본법, EU ETS 등을 활용한 공시가 가능하다.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측정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 조건 충족시 보고기간과 상이한 보고기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이 해당 배출량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를 공시해야 한다.

- ②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예: 석탄채굴로 인한 매출액 및 전체매출액 대비 비율)
- ③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예: 물부족 지역에서 취수된 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익)
- ④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예: 무공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
- ⑤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금액
(예: 저탄소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 ⑥ 내부탄소가격
의사결정에 탄소가격을 적용하는지 여부, 적용하는 방법
기업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공시 여부 선택)
- ⑦ 보상
경영진 보상에 기후 관련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와 고려되는 방법
당기에 인식된 경영진 보상 중 기후 관련 사항과 연계된 보상의 비율

기후관련 목표

기업이 설정한 기후관련 목표,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목표

KSSB 공시기준 초안에서는 목표에 대한 설명과 목표 설정 및 검토에 대한 기업의 접근법, 목표 대비 기업의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목표에 대한 설명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ISSB기준과의 비교 II

구분	IFRS공시기준	KSSB 공시기준 공개초안 제2호
산업기반지표	Scope3 배출량 공시. 단, 적용 첫 해 공시 면제	Scope3 배출량 공시. 단, 의무화 여부 및 시기는 추후결정
공시세분화	명시적인 요구사항은 없지만, 정보를 통합하여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측정방법별 공시세분화
선택권 부여	다음에 대한 공시를 요구 -내부탄소가격, -산업기반지표	다음은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 -내부탄소가격중 톤당가격 -산업기반 지표
미공시 사실기재	-	기후관련 사안에 대해 공시를 생략 한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제시
기간범위 제시	단기, 중기, 장기를 정의하지 않음	단기, 중기, 장기를 정의하여 제시, 단, 다른 정의 사용도 가능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사항'

목적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시권고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고자 한다.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01호 적용여부와 공시사항 항목별로도 공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고실체는 법규에 따라 공개중인 정보 즉 관련법규의 보고실체(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와 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보 즉, 법적실체(법인단위)이다. 이는 제1호의 개념적 기반, 일반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종속기업의 정보까지 취합하여 공시할 필요가 없다.

공시요구사항

제도	정보위치	보고단위	정보공개시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법인 또는 사업장	익년6월말 이후
환경정보 공개제도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업장	익년 12월말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	사업장	익익년 7월
사업보고서환경관련공시 사업보고서고용관련공시	사업보고서	법인	보고기간말 이후 3개월이내

ESG 주요 현안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선택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친화경영확산	강제노동예방	산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타 제도- 육아관련 기업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업이 취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및 질병 사망자수안전 및 보건관련 기업의 조직 및 활동
종업원다양성	부정경쟁방지	인권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현황-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관련 소송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관련 기업의 조직, 제도 및 규정, 인권영향평가 및 대응, 인권관련교육

[참고문헌]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제2호, 제101호, 한국회계기준원, 2024. 4. 30

KSSB 국내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발표, 법무법인 화우, 2024. 5월

삼일PwC ESG Newsletter Vol. 18

제143회 KAI Forum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2031년 이후 중장기 목표 없는 韓 기후대응?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니엄 | 2024.08.29. <https://greenium.kr/news/56351/>

한은 “기후공시 내부적으로 논의 중”...단계적 시행 가능성

ESG경제 | 2024.09.1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2>

MS, 공급망 탈탄소화 전담팀 신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 있나?

임팩트온 | 2024.09.06.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06>

“수요 둔화·충전소 부족” 볼보자동차, 2030년 전기차 100% 생산 계획 철회

그리니엄 | 2024.09.09 <https://greenium.kr/news/56837>

EU, 녹색철강 할당제 법제화 움직임... 자동차업계, “수요 강제로는 해결 못해”

임팩트온 | 2024.09.10.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28>

유통업계, 올해 추석에도 ESG 행보...친환경 포장재 확대

이코노믹리뷰 | 2024.09.16.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66965>

증권사 탄소배출권 역량 강화 지속...새 수익원 ‘주목’

데일리안 | 2024.09.17. <https://www.daian.co.kr/news/view/1407388/?sc=Nate>

“한국, 기후변화 대응 무임승차 땀 유럽지역 수입관세 압박 늘어날 것”

경향신문 | 2024.09.18.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9181958025#c2b>

리사이클링, 미국 화장품 주류 트렌드 되다... 생산자 책임 법적 강화 확대

CNC뉴스 | 2024.09.18.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541>

올해 태양광 설치용량 593GW 증가...전년 대비 29% 증가

ESG경제 | 2024.09.1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

한일,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공조 시동...양국 국장급 대화

헤럴드경제 | 2024.09.05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905050146>

사회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장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12일 개최

라이프인 | 2024.09.10.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835>

[2024 ESG 브랜드] 똑똑해진 소비자, ESG 제품에 지갑 더 열어

한경ESG | 2024.09.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94772i>

영국 경쟁시장청, “구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 남용”

임팩트온 | 2024.09.0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23>

‘SK, 지난 10년간 사회적 기업에 711억원 인센티브’ 지급

연합뉴스 | 2024.09.10.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141400003>

KB금융, 작년 5조6984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한경ESG | 2024.09.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37867i>

협력사 ESG 도왔더니...“3년만에 수출액 37배 늘었어요”[같이의가치]

뉴스시스 | 2024.09.1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2_0002886083

글로벌 M&A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거래 시 ESG 요소 고려”

이데일리 | 2024.09.11.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941766639019136&mediaCodeNo=257>

[250대기업 업종별 ESG 분석] ‘공시율 100%’ 건설·조선업...UNGC도 ‘대부분’ 가입

한스경제 | 2024.09.19.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912>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24.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279	280	278	279	289	290	283	291
사회적채권	1,474	1,502	1,531	1,526	1,554	1,577	1,609	1,618
지속가능채권	285	275	268	254	238	237	230	261

(단위: 천억 원)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구분	'24.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255	266	262	259	264	264	264	269
사회적채권	1,999	2,023	2,054	2,044	2,079	2,102	2,121	2,113
지속가능채권	199	186	184	177	171	171	167	166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8.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194

(단위: 건)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8.3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506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8)

* CF100 참여 기업 수: 159개 ('24.8)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3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8월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